# 하나님의 손가락과 태블릿PC

## (출31:1~18)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5.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18.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가락과 태블릿pc>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과 태블릿pc'
태블릿pc는 컴퓨터인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노트북도 그렇고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컴퓨터도 그렇고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키보드자판을 통하거나 마우스를 가지고 글자를 쳐서 명령을 주거나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해서 작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태블릿pc는 가방 속에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고 노트북보다 훨씬 가벼워서 아주 유용한데 키보드가 없이 패드, 액정화면에 손가락이나 전자막대기를 가지고 글자를 써서 명령을 넣으면 컴퓨터가 그 글자를 인식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0년대 초반에 이 태블릿pc를 처음 만들었는데 활성화 되지 못하고, 2010년 4월에 애플사에서 태블릿pc의 이름을 "아이패드"라고 해서 굉장한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2010년 11월에 삼성이 '갤럭시탭'이라고 하는 태블릿pc를 만들고 LG전자에서 'g패드'라고 하는 태블릿pc를 만들고 중국에서는 '레노버'라고 하는 회사가 유명하게 태블릿pc를 잘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이게 2000년대 들어서 된 것인데, 3500년 전에 이 태블릿pc의 오리지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시내 산꼭대기로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을 계속 주셨고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모세에게 돌판 둘을 주셔서 들고 산을 내려오게 되는데 이 돌판이 18절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라고 하십니다. '친히'라고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의 본래의 뜻을 따

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라는 말입니다. 돌판은 스톤태블릿으로 ‘태블릿’이라는 말이 ‘판’으로 스톤태블릿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입니다. “너는 나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맨 마지막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는데 그 쓰신 것이 우리 선민들에게 작용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고 또 살인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태블릿pc의 원형이 아닙니까?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들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돌판 둘을 들고 내려왔다는 사실 이야기를 의미 연관 없이 덧붙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의미가 통하고,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18절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태블릿pc에 쓰듯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이 이야기가 없으면 오늘 이 31장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본문 이해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회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회막에 들어가야 될 각종 기구들의 모든 식양인 수치, 재질, 모양, 배치하는 위치라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그대로 회막을 만들고 회막에 배치될 기구들을 제작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만들어서 일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인데 바로 그 본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하십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셔서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회막 제작의 일에 임하는 상태와 이 사람의 조건이 3-4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충만 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정교한 일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라는 이 말이 참으로 재미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교한’과 ‘일을 연구하여’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정교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하솨브’의 동사로 ‘생각하다, 고안하다, 계획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로 ‘정교한 일’이라고 할 때 정교한 일도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마하솨브’라고 하는 명사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는 말은 ‘생각을 생각하여’라는 뜻인데 이 말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일을 정교하게 해야 되니 골몰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생각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교한 일’이라는 것은 앞서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구하여’라고 하는 말이 브살렐의 생각을 말하는데 브살렐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는 이렇게 만들라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브살렐 생각이라고 하는 태블릿pc의 패드에 십계명 돌판에 쓰시듯이 당신의 생각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생각했다는, 생각을 생각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냐면, 지금 선민에 관한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쭉 읽어 오던 중에 선민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노동으로 아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상태지만 첫 번째 노동에 관한 언급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돌판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처럼 회막을 만들 때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브살렐의 생각이 태블릿pc의 패드가 돼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심으로 하나님이 적어 주신대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제시된 얘기와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생각의 패드에 적어주신 것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노동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선민이 앞으로 근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노동을 하며 살아갈 때 노동의 원리가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민이 하루 동안 노동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태블릿pc의 패드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적어 주시는 대로 작동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두 돌판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라는 말입니다. '정교하다'는 것은 아주 치밀하고 교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치밀하므로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의 패드에 기록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8절의 말씀이 첨가된 것입니다. 사실을 기록한 것뿐 아니라 이 본문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으로 이 본문은 회막을 제작함으로써 첫 번째 선민에게 보여 진 노동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만 앞으로 선민은 회막 제작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임해서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원리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교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빈틈이나 구멍이나 왜곡이나 실패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브살렐에게 그렇게 정교하게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브살렐의 생각의 패드에 손가락으로 적어 주신 것처럼 생각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패드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도 정교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사업도 정교한 사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자체가 살아있는 아이패드가 되어서, 살아있는 갤럭시탭이

되고 살아있는 g패드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패드로 태블릿pc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록을 해야만 하고 기록한 대로 움직일 때 결과적으로 정교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브살렐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브살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도대체 이게 인간 브살렐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또 6절에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오홀리압을 브살렐에게 붙여주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라 '숙달된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목공일, 보석가공, 금속가공 같은 일로 숙달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홀리압이 물건을 만들 때 원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를테면 금속가공 능력이 있는데 금속가공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인지 오홀리압의 능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분명히 내 인격자체를 살아있는 태블릿pc로 여기셔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당신의 생각을 기록해 주시면 그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선민의 행동의 원리요, 노동의 원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얘기가 "안식일"입니다. 아! 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다 보면 이렇게 정교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셨고 군데군데 규정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말씀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은 어떤 행동을 위한 규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안식의 의미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일단 아무것도 안하는 것입니다. 외형상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손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엿새 동안 진행되었던 일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지금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제작할 때 내 손끝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기가 막힌 것으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생각들을 글로 쓰신 것으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말과 같은 뜻이지요. 당신의 생각대로 무(無)라는 태블릿pc 패드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시니 글자대로 세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8;3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브살렐의 마음속

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그의 행동이 나타난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려면 자기가 만들었는데도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회막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셨을 것이고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써 주시는 대로 행동이 나타났는데 나 자신이 확-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만든 작품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안식일의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진행된 모든 일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내 마음에서 전혀 내일이 아닌 것처럼 밀쳐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한 일을 안식일에도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이유가 그게 내 일이기 때문이고 내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말씀하신 이유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결과물들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안식일이 되면 그 기가 막힌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지 못하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 쓰임 받음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죽어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은 일의 진행과 상관없이 일이 잘되면 기쁘고 일이 안 되면 괴로워하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만 기쁘고 행복한 상태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이제부터 손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 판 패드에 써지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끝을 움직여 주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만족과 기쁨이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잘돼서 만족하려고 하면 이미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우리 마음 판에 써지지도 않고 우리가 스스로 정교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생각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충분히 기쁘고 만족할 수 있으면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크게 부흥시킴으로서 비로소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부흥이 안 돼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부흥이 되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부흥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충만해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일은 나를 살아있는 태블릿pc 삼으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십계명을 돌판에 손가락으로 쓰셨던 것처럼 당신의 계획을 손가락으로 써 주실 때 그 써주시는 생각이 말에 나타나고 손끝에 나타나고 내 몸에 나타나면서 노동이 되고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열쇠는 하나님 충만 인데 브살렐이 훌의 손자라고 합니다. 훌은 선민의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아론과 훌이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훌입니다. 그러므로 이 브살렐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우리 때를 거쳐서 이 집안의 첫 번째 화두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손을 붙잡아 준 자가 훌이라는 얘기가 이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가문의 가장 영광스런 얘기이고 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브살렐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건 지금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므로 어떻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까?

바로 상번제의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상번제의 의미는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소제의 의미로 순간마다 죽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포도주의 기운으로 하나 되는 것 같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 마음이 하늘로 올라감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취하게 해 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사건이 십자가로 신약의 주의 기도와 구약의 주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다고 생각되면 단축기도를 드리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동선을 따라 내 마음이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내 마음도 이 땅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되 이 땅에서 기쁨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족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행복의 조건을 구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상관없이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상관없이 오직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죽기를 기도하는데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의 과정이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내 마음도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오직 하늘로 부터만 기쁨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주님 따라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은 주님대로 계시고 하나님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멀뚱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삼위일체, 주님이 하나님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를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서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아버지를 보고 주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아버지를 느끼면서 주님이 교제 중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더욱더 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충만 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만큼 충만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충만의 정도가 결정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로 유지되는 것의 정도로 결정이 되고 이것이 결정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는 태블릿pc 삼으셔서 당신의 생각을 기록해 주시는 정도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신 것처럼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손가락으로 쓰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태블릿pc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써 주시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회막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회막인 하나님의 거처가 돼야 하는 것으로 정교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쓰신다는 얘기와, 안식일의 얘기와, 회막 제작의 얘기가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깊은 연관성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정교하신 당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의 화면에 써 주시고 써 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